

문항카드 4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III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I, 사회·문화, 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반복, 독서, 우연한 계기, 일탈, 습관화, 협력, 도전, 혁신
예상 소요 시간	48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행위의 반복’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각 제시문에서 반복에 나타난 ‘특징’과 반복의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가)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서대문으로 넘어가는 언덕의 옛 경회궁 터에 있었다. 나는 아침저녁으로 이 길을 지나다녀야 했는데, 이 길가에 단골 책방이 있었다. 그곳은 얼마 크지 않은 책방이었으나 비교적 여러 종류의 책들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내 짝이었던 케이(K) 군과 더불어 방과 후의 거의 모든 시간을 이곳에서 살다시피 했다. 당시 나는 그 책방에 있는 거의 모든 책을 읽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나를 붙잡은 작품이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였다.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빼놓고서는, 나는 나의 독서 체험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뼈대가 없음을 느낀다. 이 작품은 젊은 날의 독서 체험의 핵심이자, 지금도 나의 삶을 끊임없이 간섭하고 있는 인생의 한 축복이기도 하다. 이 작품을 처음 접한 것은 중학교 이학년 때였다. 이때 “파우스트”와 만난 것은 물론 우연이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곳에 있던 책순서대로 이 책이 골라 잡혔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파우스트”는 나에게 있어서 새삼스러운 충격도 아니었고, 유익한 의미는 더더구나 아니었다. 그나마 첫 독서에서 얻어진 감상은 파우스트는 유식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러면서도 고민이 많은 사람이며, 메피스토렐레스는 무식하면서도 괴만 많고 나쁜 사람이라는 도식이었다. 그러나 그 밖의 것은 통 통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파우스트”와의 두 번째 만남은 대학교 일학년 때 다시 시작되었다. 당시 나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별의별 방법을 모두 써 보아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파우스트”였다. 이 책을 읽으면 잠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든 것이다. 이렇게 “파우스트”와 나는 다시 만났다.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하였다. 이 실패는 어렸을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왔다. 우선 잠을 자는 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신은 더욱 맑아지고, 두 눈은 더욱 또렷해질 뿐이었다. 그래서 글의 내용도 더욱 분명하게 들어왔고 이 글이 파우스트 박사와 메피스토렐레스를 대립시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에 나는 흥미해졌다. 그리고 메피스토렐레스와의 계약에 의해 파우스트가 젊어진다는 설정 자체가 갖는 신비주의 역시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파우스트”는 이후에 독일어 원문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독문과에 진학한 나

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무튼 학교에서 독일어로 읽고 번역하고 배움으로써, “파우스트”는 예전과는 다르게, 비교적 선명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파우스트의 행위가 ‘죄와 구원’이라는 인간 본질의 역정\*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먹고사는 문제에 허덕이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헤매던 나에게 죄, 구원, 본질 따위의 단어가 우리의 물질적 실존과도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차츰 시야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파우스트”는 나에게 문학, 또는 인문주의에 대한 개인\*\*의 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역정: 지금까지 지나온 경로.  
\*\*개인: 깨달아 아는 일.

(나) 누구나 때로는 일탈적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가볍고 일시적이며 쉽게 감추어질 수 있다. 이를 가리켜 ‘1차적 일탈’이라 한다. 1차적 일탈은 모르는 채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며, 당사자도 자신을 일탈자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일탈 행동이 일단 발견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그 개인은 일탈자로 낙인찍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일탈자로 대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일탈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그 낙인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일탈자로서의 새로운 자아 개념을 발전시켜 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한다. 결국, 일탈이 습관화되어 일탈 행동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를 ‘2차적 일탈’이라 일컫는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형을 마치고 전과자로 낙인찍혀 나온 사람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취업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기회 획득에서 차별을 받곤 한다. 이럴 경우, 그들은 자신을 전과자로 인식하고, 제법의 길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다) 미국의 정치학자 액셀로드는 ‘죄수의 딜레마’라 불리는 단순한 게임에 매료되었다. 이 게임은 ‘물주’ 한 명과 게임 참여자 두 명으로 구성되어 물주가 게임을 하는 두 상대에게 판정을 내려 이득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진행 방법은 이러했다.

내가 당신과 대결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나와 당신은 ‘협력’과 ‘배신’이라고 표시된 카드를 받는다. 게임할 때 그중 하나를 뽑아 탁자 위에 얹어 놓는다. 이때 어느 쪽도 상대의 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패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임의 승패는 자기가 어떤 카드를 냈는가 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바로 이 점이 흥미진진한 요소이다. 카드는 양쪽 모두 두 장씩이므로 가능한 결과는 네 가지가 된다. 각각의 결과에서 얻는 이득은 아래와 같다.

그럼 왜 ‘딜레마’일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내가 당신과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나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진행될지 상상해 보면 된다. 나는 당신이 낼 수 있는 카드가 ‘협력’과 ‘배신’이라는 카드 두 장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당신이 ‘배신’ 카드를 낸다면 나 또한 ‘배신’ 카드를 내야 내가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 상호 배신으로 벌을 받지만, 만일 ‘협력’ 카드를 낸다면 나는 그 손해를 혼자서 뒤집어쓰므로 그보다는 나을 것이다. 다음에는 당신이 ‘협력’ 카드를 낼 때를 상상해 보자. 이때도 내가 ‘배신’ 카드를 내야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 만일 내가 ‘협력’ 카드를 낸다면 우리 둘 모두는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배신’ 카드를 낸다면 그보다 더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이 어느 카드를 내든 나는 늘 ‘배신’ 카드를 내는 것이 최선의 수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하여 나는 나무랄 데 없는 논리로, 당신이 무엇을 내든 나는 ‘배신’ 카드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을 얻었다. 당신 또한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므로 이성적인 두 경기자가 만나면 둘 다 배신하여 똑같이 벌금을 물거나 낮은 이득을 얻을 것이다. 만약 ‘협력’ 카드만 낸다면 상호 협력에 대한 비교적 높은 포상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둘 다 잘 알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게임이 딜레마이며, 지나칠 정도로 역설적이기까지 한다.

이 딜레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가? 만일 둘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각각이 상대에게 “나는 이기적인 큰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 라고 안심시킬 방법만 있다면, 협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만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단순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이처럼 신뢰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단순한 버전 외에 또 하나의 변형된 게임이 있다. 이를 ‘반복된’ 또는 ‘되풀이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한다. 이 반복 게임은 좀 더 복잡하고, 그 복잡함 속에는 희망이 있다. 이 반복 게임은 경기자 두 명이 위에서 이야기한 단순 게임을 무한정 반복하는 게임이다. 이번에는 게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카드를 집어서 다음 게임을 한다. 그 결과 승리를 거둔 전략은 놀랍게도 가장 단순하고 가장 덜 교묘해 보이는 전략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다. 이 전략은 최초의 승부는 협력에서 출발하고, 그 이후에는 단순히 상대의 앞 수를 흉내 내는 것이었다. 몇 번 게임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신뢰 또는 불신을 쌓고, 보복하거나 회유할 기회를 갖는다. 중요한 것은 무한정 계속되는 게임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물주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둘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배신’이 유일한 합리적인 전략임을 예측할 수 있는 단순한 게임과는 달리, 반복 방식의 게임은 다수의 전략적 선택의 여지를 제공한 다.

(라)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라고 한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도 인류의 밤을 밝힌 백열전구에 적합한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 1만 번 이상의 실험을 했다. 중간에 포기할 마음이 들지 않았느냐고 어느 기자가 묻자 “왜 포기할 하나요? 나는 이미 필라멘트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9,000가지 이상 알고 있었는데요.” 라고 답했다. 이처럼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할 때에는 타고난 천재라도 수없이 실패하게 마련이다. 정말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배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험난한 실패를 딛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남이 안 한 모험적인 시도를 해야만 진정한 성공이 가능한 것이다.

**3. 출제 의도**

-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제시문을 행위의 반복이라는 관점에서 읽고 그 핵심 특징과 결과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있다.

- 각 반복 사례의 특징과 결과를 비교하여 논리적으로 글의 내용을 구성하고 서론, 본론, 결론의 완결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7호]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1	관련
	성취기준 1 [독서] (6) 독서의 목적과 상황, 독자의 흥미나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글을 스스로 선택하여 읽는 태도를 기른다. 독서 상황 요인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책을 읽을 것인가와 관련된다. 독자의 흥미, 태도, 가치관 등의 정의적 요인은 독서의 인지적 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독자가 자신의 흥미에 맞는 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글, 자신의 가치관을 고려한 글을 골라 읽고, 성공적인 독서 경험을 통해 독서가 개인의 성장 및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평생 독자로서의 소양을 지니도록 지도한다.	제시문 (가)
성취기준 2 [독서] (5) 여러 가지 독서 방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독서 방법을 적용하여 글을 읽는다. 글을 읽는 방법은 독서 상황 즉, 어떤 글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목적으로 읽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소리를 내는지 여부에 따라 음독과 묵독, 독서 속도에 따라 속독과 지독(誣讀, 천천히 읽기), 독서 범위에 따라 전부 읽기와 발췌 읽기, 꼼꼼하게 읽는 정도에 따라 통독, 정독, 미독(味讀) 등 매우 다양하다. 전문적인 읽기 방법으로는 ‘훑어보기-질문 만들기-읽기-확인하기-재검토하기(SQ3R)’와 같은 독서 방법, 다양한 관점의 자료들을 비교·대조하여 읽고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는 주제 통합적 읽기 등이 있다. 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독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제 1	
성취기준 3 [작문] (8)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다. 중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갖추어 대상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작문 상황에 맞게 선별하고 조직해야 한다. 글의 종류, 독자, 매체 등에 따라 적절한 정보와 그 조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인 통일성과 응집성에 유의하여 글을 쓰도록 한다.	문제 1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 1 [정보 전달을 위한 작문] (13)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다양한 표현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장 면에서는 모호한 표현, 함축적 표현, 상황	제시문 (다)	

	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글의 구조 면에서는 전체 구조나 내용들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관을 제시하거나 적절한 도표나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성취 기준 2	[설득을 위한 작문] (22) 주장하는 내용과 관점이 명료하게 글을 쓰며 글의 영향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다.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관점과 주장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자신의 글이 어떤 영향과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를 생각하여 관점을 정하고 이를 명료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성급하게 어떤 문제에 대하여 관점과 주장을 정하지 말고 다양하고도 풍부한 자료를 충분히 분석, 조사한 후에 정하되 특히 자신의 글에 그 관점과 주장이 담길 때, 그 글이 가질 수 있는 가치나 문제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그리고 관점과 주장이 정해졌으면 실제 글에서 이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문 (라)
성취 기준 3	[정보 전달의 원리] (5) 정보를 전달하는 담화나 글의 구조와 내용 조직 원리를 이해하고 목적과 대상에 적합하게 내용을 구성한다. 정보를 전달하는 담화나 글을 구성할 때 설명의 대상이나 설명하는 목적에 따라 적합한 구조로 표현하려면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의 목적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설명의 대상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는 사물일 수도 있고, 일련의 절차나 과정, 사건의 경위나 현황,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다. 설명의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설명 대상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담화나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도록 한다.	문제 1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개인과 사회 구조] (배) 개인, 집단 및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탈 행동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나)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1	이승원 외	좋은책 신사고	2014 (2016)	222-225	제시문 (가)	○(중략)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5	81	제시문 (나)	X
화법과 작문	이삼형 외	지학사	2014 (2016)	130-133	제시문 (다)	○(중략)
화법과 작문	박영민 외	비상교육	2014 (2018)	188-189	제시문 (라)	X

5. 문항 해설

이 문항은 ‘행위의 반복’이라는 측면에서 네 개의 제시문을 읽고 각각의 사례에서 반복의 특징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찾아 비교하여 완결성(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글로 작성하는 문항이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 I』(좋은책 신사고, 2016)의 단원 6(1) ‘선택하여 읽는 즐거움’에 실린 김주연의 수필 「『파우스트』 읽기 40년」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단원은 ‘독서의 목적과 상황, 흥미나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글을 선택하여 읽는다’라는 성취 기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췌한 텍스트는 우연한 계기로 일어난 반복의 경험이 저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묘사한 부분이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우스트”라는 책을 여러 번 읽게 되면서 문학과 인문주의에 눈을 떠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사회·문화』(천재교육, 2015)의 단원 II-3 ‘개인과 사회의 관계, 일탈 행동’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우발적이거나 가벼운 일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규정이 어떻게 일탈의 반복과 습관화로 이어지는지를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지학사, 2016)의 단원 II-3 ‘정보 전달을 위한 작문’에 실린 리처드 도킨스의 「마음씨 좋은 놈이 일등한다」의 일부이다. 이 단원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라는 성취 기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글은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응용한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개념과 내용을 소개한다. 저자는 죄수의 딜레마를 응용한 게임의 규칙을 소개한 후 무한정 반복 속에서 나타난 특성을 묘사한다. 아울러 무한 반복 게임의 결과가 1회 게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술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비상교육, 2016)의 단원 III-3 ‘설득을 위한 작문’에 실린 오세정의 「젊은이들에게 실패를 허하라」의 일부이다. 이 단원은 ‘주장하는 내용과 관점이 명료하게 글을 쓰며 글의 영향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글은 젊은이들이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도록 실패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라)는 이 가운데서,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성공을 이루어낸 에디슨의 사례를 발췌하여 제시하고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1	<p><b>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b></p> <p>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p> <table border="1"> <tr> <th>위반 글자 수</th> <th>감점 점수</th> </tr> <tr> <td>±1~25자</td> <td>1점 감점</td> </tr> <tr> <td>±26자 이상</td> <td>2점 감점</td> </tr> </table> <p>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p> <p><b>2. 내용적 측면(40점: 32점+8점)</b></p>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40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반복에 나타난 ‘특징’ 과 반복의 ‘결과’ 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32점)**

- ① 제시문 (가)  
특징: 의도하지 않았으나 우연한 계기로 동일 작품을 대해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반복(4점)  
결과: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깊이 이해하게 됨으로써 문학과 인문주의에 눈뜨게 됨(4점)
- ② 제시문 (나)  
특징: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라는 외부적 영향을 받아들임으로써 일어나는 반복(4점)  
결과: 일탈 행위가 습관화되어 벗어나기 어렵게 됨(4점)
- ③ 제시문 (다)  
특징: 무한정 반복되는 과정에서 상대의 선택이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4점)  
결과: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져 더 큰 이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됨(4점)
- ④ 제시문 (라)  
특징: 분명한 목표와 끊임없이 도전하는 의지에 의해 일어나며 실패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는 반복(4점)  
결과: 목표를 달성하고 혁신과 창의에 이를 수 있게 됨(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반복에 나타난 특징과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의 형태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8점)**

- ① 도입 부분과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3점)
- ②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핵심적 내용이 압축적으로 메끄럽게 요약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26자 이상	1점 감점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반복의 특징과 결과를 각각 찾아 제시 (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7. 예시 답안**

반복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결과 또한 다양하다. (가)의 독서의 반복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우연한 계기로 동일 작품을 시간차를 두고 읽게 되면서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깊이 이해하게 됨으로써 문학과 인문주의에 눈뜨게 된다. (나)의 일탈 행위의 반복은 사회적 낙인과 그로 인한 차별이라는 외부적 영향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 결과 일탈 행위가 습관화되어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다)의 게임 속 반복은 무한정 반복되는 과정에서 상대의 선택이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이전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두 사람은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라)의 실험의 반복은 분명한 목표와 끊임없이 도전하는 의지에 의해 일어나며 실패에 대한 분석이 수반된다. 그 결과 목표를 달성하고 혁신과 창의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반복은 우연한 계기, 외부적 영향, 상호 작용, 목표 추구 과정에서 일어나며 그 결과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 습관적 일탈, 협력의 증진, 창의와 혁신을 얻을 수 있다. (561자)

문항카드 5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II/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화법과 작문, 국어, 독서와 문법
	핵심개념 및 용어	도전, 성공, 실패, 정보, 지식, 경험, 선입견, 본질
예상 소요 시간	48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문 (라) ‘에디슨’ 사례와 제시문 (마) ‘두 인물’ 사례의 차이점을 찾아 서술하고, (마)의 두 인물이 실패를 딛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라)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한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도 인류의 밤을 밝힌 백열전구에 적합한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 1만 번 이상의 실험을 했다. 중간에 포기할 마음이 들지 않았느냐고 어느 기자가 묻자 “왜 포기를 하나요? 나는 이미 필라멘트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9,000가지 이상 알고 있었는데요.”라고 답했다. 이처럼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할 때에는 타고난 천재라도 수없이 실패하게 마련이다. 정말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베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험난한 실패를 딛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남이 안 한 모험적인 시도를 해야만 진정한 성공이 가능한 것이다.

(마) 가건물 안, 이영복이 군용 침대 위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침대 말에는 주파수 조정이 안 되는 고장 난 라디오가 켜져 있다. 일기 예보와 권투 시합 중계방송이 뒤섞여서 들려온다. 김진만, 구덩이에 죽은 물고기들을 버리고 돌아온다.

김진만: 바싹바싹 목이 타! 새까맣게 가슴속도 타고! (식탁으로 가서 주전자를 들어 올리더니 입을 벌리고 물을 쏟아붓는다.) 며칠째 죽은 물고기만 건져 냈더니 염병할, 나도 이제 죽고 말겠어!  
 이영복: (침묵)  
 김진만: 건져도 건져도 끝이 없단니까!  
 이영복: (침묵)  
 김진만: 다 죽은 거야! 한 놈도 남김없이,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다 돼져 버렸어!  
 이영복: (침묵)  
 김진만: 여봐, 자네만 충격을 받은 게 아냐. 이번 일로 나 역시 충격이 커. 자네 돈, 내 돈, 몽땅 털어서 이 염병할 양식장에 쏟아 넣었지! 그랬는데 염병할, 우린 이제 완전히 망했어!  
 이영복: (침묵)  
 김진만: 얼빠진 듯 가만있지 말고, 무슨 좋은 방법을 말해 봐!  
 이영복: 생각해 봐야겠어…….  
 김진만: 도대체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야? 우리가 공동 명의로 이 양식장을 구입했을 때, 그

염병할 브로커 자식이 뭐라고 했지? 몰라도 된다고 했어, 몰라도 된다고! 우리가 물고기를 먹어만 봤지 키워 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그 사기꾼 브로커 자식이 몰라도 되니까 안심하라는 거야. 손톱만한 물고기 새끼들을 사다가 양식장에 집어넣고 몇 개월쯤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말뚝만하게 자라난다면서, 투자한 돈의 몇배 배를 번다나 어쩐다나……. 우리가 속은 거야! 몰라도 된다는 그 사기꾼 브로커 자식한테 우리가 속은 거라구!  
 이영복: (침묵)  
 김진만: 우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영복: (침묵)  
 김진만: 그 염병 앓다가 꼬꾸라질 자식이 상습적으로 남을 속여 먹는 브로커라는 거야. 다른 양식장 일꾼들이 말해 주더군. 적조 때가 되면 나타나 아주 험값으로 양식장을 샀다가, 적조가 사라진 다음 아주 비싸게 팔아먹는댔어. 가만히 앉아서 떼돈 벌 수 있다는 그놈 똥에, 순진한 우리가 걸려든 거지!

김진만, 해먹 위로 올라가 놓는다.

김진만: 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자식이 나타나면, 먹살 잡고 따귀부터 때리겠어! 양식장을 되돌려 줄 테니까 우리 돈 내놓아라 호통을 치겠다구!  
 이영복: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 있을까…….  
 김진만: 뭐라구?  
 이영복: 난 생각해 봤어……. 생각해 봤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뭘 가 알고 했던 건 하나도 없어.  
 김진만: 도대체 무슨 소릴 하는 거야?  
 이영복: 생각해 봐, 자네도. 우리가 처음 했던 일은……. 신철 도서관에 책을 납품하던 일이었지. 그런데 우린 무슨 책인지 몰라도 됐어. 그저 오천 권 가져오라 그러면 아무 책이나 오천 권 가져다 주고, 만 권 주문하면 만 권 갖다주고…….

(바) 영화 「굿 윌 헌팅」에서 교수로 나온 로빈 윌리엄스는 오만한 천재 소년 역을 맡은 맷 데이먼에게 말한다. “내가 미술에 대해 물으면 넌 온갖 정보를 다 갖다 달겠? 미켈란젤로를 예로 들어볼까? 그의 걸작이나 정치적 야심, 교황과의 관계, 성적 본능까지도 넌 알고 있을 거야, 그지? 하지만 시스티나 성당의 내용이 어떤지는 모를걸? 한 번도 그 성당의 아름다운 천장화를 직접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철들지 않았을 때는 경험보다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며 이들의 축적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이 최고의 진리라 믿고 살아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직접 체험한 것이 더 진실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남을 통째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느끼는 직접 체험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얻게 되지 않을까.

(사) 물을 건널 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젓히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속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젓히고 하늘에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가 생각했다. 한참 뒤에야 알았지만 물 건너는 사람들이 넘실거리고 빙글빙글 빨리 돌아가는 강물을 보면, 마치 자기 몸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눈은 강물과 함께 따라 내려가는 것만 같아서, 갑자기 현기증이 생기고 몸이 빙글 돌며 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고개를 젓히고 우러러 하늘을 보는 까닭은 하늘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 함이다. 어느 거물에 경각에 달린 생명을 위하여 기도를 드릴 경황인들 있을 것이라. 이토록 위험하다 보니 물소리를 듣지 못하고, 모두들 말하기를 ‘요동의

별관은 넓고 편편하기\* 때문에 물소리가 요란하게 나지 않는다.’ 고 한다. 이는 물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요동 땅 강물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눈은 오직 위험한 데만 쏠려 바야흐로 별별 떨면서 눈으로 보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판인데, 어찌 귀에 소리가 다시 들리겠는가? 오늘 나는 밤중에 물을 건너는지라 눈으로는 위험을 볼 수 없으니 그 위험은 오로지 듣는 데만 쏠려 귀가 바야흐로 무서워 부들부들 떨면서 그 걱정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오늘에서야 도(道)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마음에 잡된 생각을 끊은 사람, 곧 마음에 선입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귀와 눈이 탈이 되지 않거니와, 귀와 눈을 믿는 사람일수록 보고 듣는 것을 더 상세하게 살피게 되어 그것이 결국 더욱 병폐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편편하기: 물건의 표면이 높낮이가 없이 매우 평평하고 너르기.

**3. 출제 의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특정한 관점에서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다각도로 비교해 보는 균형 잡힌 사고력과 2) 특정한 사례를 근거로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필요한 자제나 태도를 찾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실험을 통해 새로운 발견이라는 성공에 도달한 에디슨의 사례와 사업을 통해 경제적 성공을 이루려는 목적 달성에 실패한 두 인물의 사례를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찾는 통합적 응용력을 평가하고, 주어진 두 제시문을 읽고 그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인물이 실패를 딛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찾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p>[설득을 위한 작문]</p> <p>(22) 주장하는 내용과 관점이 명료하게 글을 쓰며 글의 영향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다.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관점과 주장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자신의 글이 어떤 영향과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를 생각하여 관점을 정하고 이를 명료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성급하게 어떤 문제에 대하여 관점과 주장을 정하지 말고 다양하고도 풍부한 자료를 충분히 분석, 조사한 후에 정하되 특히 자신의 글에 그 관점과 주장이 담길 때, 그 글이 가질 수 있는 가치나 문제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그리고 관점과 주장이 정해졌으면 실제 글에서 이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103쪽)</p>	<p>성취 기준 1</p> <p>제시문 (라)</p>
과목명: 국어 I	관련	
	<p>[문학]</p> <p>(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문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형상화하여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 예술이다. 이러한 문학</p>	<p>성취 기준 1</p> <p>제시문 (마)</p>

	<p>의 정의를 고려하여 문학은 언어 예술적 요건, 가치 있는 주제로서의 요건, 문학적 표현으로서의 형상화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이해한다. 문학의 생산뿐만 아니라 수용도 문학의 소통 활동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한 사회적 소통 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77쪽)</p>	
성취 기준 2	<p>[문학]</p> <p>(15)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따라서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고유한 생각과 취향, 가치관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이나 형상화 방법에서도 작가만의 독특한 개성이 나타난다. 작품을 읽고 작가의 개성을 파악하여 작가 개인의 고 유한 예술적 성취를 이해하며, 나아가 이를 학습자 자신의 개성과 비교하여 자신의 문학 활동을 보다 풍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77쪽)</p>	제시문 (사)
성취 기준 3	<p>[독서]</p> <p>(4)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독서는 단순히 문자 기호를 읽을 줄 아는 해독(解讀)의 과정이 아니라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전언(傳言)을 이해하는 독해(讀解)의 과정이다. 독서는 글의 고정적 의미가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가치관이나 신념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고등 사고 과정이다. 이에 유의하여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며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74쪽)</p>	문제 2

과목명: 독서와 문법		관련
성취 기준 1	<p>[독서의 방법]</p> <p>(17) 글의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글을 구성하는 소단위의 내용을 대상으로 글에 나타난 정보의 확 인, 그들 사이의 의미 관계와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사실적 독해 학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핵심어로서의 화제 파악, 화제와 관련하여 중심이 되는 진술 내용,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문장의 중요도 파악, 문단 간의 관계 등을 통해 사실적 독해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며 읽을 수 있도록 한다. (123쪽)</p>	<p>문항2, 제시문 (마)</p>
	<p>[독서의 방법]</p> <p>글의 화제나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한다. 글에는 말하고자 하는 화제와 주제가 있고 그 내용에는 필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글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내용들은 단지 필자나 독자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독서 행위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일과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나 갈등의 해결에 기여하게 된다. 한 편의 글 또는 여러 글을 읽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자신의 견해나 문제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창의적 독해 능력의 신장에 초점을 둔다. (124쪽)</p>	문제 2
	<p>[독서와 국어생활]</p> <p>(23) 시대에 따라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가 달랐음을 알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구성하며 글을 읽는다. 글의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구성하며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동안 과학 기술 문명의 발전에 따라 글쓰기나 독서의 문화도 큰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고대로 올라갈수록 서필(書筆) 도구의 제약과 그에 따른 글쓰기와 독서의 문화적 관습의 차이, 필자와 독자 집단의 제한 및 소통의 제한이 컸다. 시대 차이가 큰 글일수록 당대의 글쓰기 관습이나 독서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글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p>	문제 2

는지 살펴면서 읽는 것은 독서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25쪽)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만 작성함.

교과서 내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화법과 작문	박영민 외	비상교육	2014 (2016)	188-189	제시문(라)	0 (중략)
국어 I	조현철 외	해냄에듀	2014 (2017)	150-151	제시문(마)	0 (중략)
독서와 문법	이상형 외	지학사	2014 (2017)	128	제시문(바)	0 (중략)
국어 I	김종철 외	천재교육	2014 (2017)	21-24	제시문(사)	0 (중략)

5. 문항 해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비상교육, 2016)에 실린 오세정의 「젊은이들에게 실패를 허하라」의 일부이다. 이 논설문은 젊은이들이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도록 실패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성공을 이루어낸 에디슨의 사례를 통해 실패는 성공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강조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 I』(해냄에듀, 2017) 교과서에 실린 이강백의 「물고기 남자」의 일부이다. 이 글은 브로커의 말만 믿고 바닷가 양식장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실패한 두 남자의 사례를 담고 있다. 도서관 책 낱품 사업에 이어 양식장 사업에서도 실패를 겪으면서, 그 원인이 일에 대한 이해 부족에 있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지학사, 2017) 교과서에 실린 홍승우의 「시스티나 성당의 내음이 어떤지는 모를걸」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영화 속 교수와 소년의 대화를 통해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보다 직접 체험을 통해 진실을 자각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지, 자신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소중함을 강조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국어 I』(천재교육, 2017) 교과서에 실린 「하룻밤에 강물을 아홉 번 건너며」의 일부이다. 열하일기의 일부인 이 글은 감각에 현혹되지 말고 선입견 없이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보여준다.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눈이나 귀를 통해 지각하는 두려움은 실은 물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항 2	<p><b>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b></p> <p>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p> <table border="1"> <tr> <th>위반 글자 수</th> <th>감점 점수</th> </tr> <tr> <td>±1~25자</td> <td>1점 감점</td> </tr> <tr> <td>±26자 이상</td> <td>2점 감점</td> </tr> </table> <p>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증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p> <p>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p> <p><b>2. 내용적 측면(40점)</b></p> <p>1) <b>제시문 (라)의 사례와 제시문 (마)의 사례를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차이점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서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20점)</b></p> <p>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패가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5점)</p> <p>② 목표한 일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5점)</p> <p>③ 일의 시작과 추진에 있어 자기 주도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5점)</p> <p>④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려는 노력 여부를 파악한 경우.(5점)</p> <p>2) <b>두 인물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20점)</b></p> <p>① 제시문 (바)의 논지: 지식과 기술보다 직접 체험을 통해 자신과 인생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음.(5점)</p> <p>② 제시문 (사)의 논지: 경험을 통해 얻는 정보가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 있으므로 선입견을 버리고 도를 깨달아야 함을 말하고 있음.(5점)</p> <p>③ 통합: 이 두 논지를 통합하면, 성공을 위해서는 직접 체험이 중요하지만 그 병폐 역시 염두에 두고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선입견을 제거하기 위해 경험의 중요성을 간파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10점)</p> <p>*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p> <p>*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p> <p><b>[채점 기준 요약표]</b></p> <table border="1"> <tr> <td rowspan="3">기술적 측면 (-5점)</td> <td>글자 수 위반 (-2점)</td> <td>±1~25자</td> <td>1점 감점</td> </tr> <tr> <td>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td> <td>±26자 이상</td> <td>2점 감점</td> </tr> <tr> <td>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td> <td>증대한 오류</td> <td>최대 3점 감점</td> </tr> <tr> <td rowspan="2">내용적</td> <td rowspan="2">① (라)와 (마)의 차이점을</td> <td>한 문장 이상</td> <td>최대 5점 감점</td> </tr> <tr> <td>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패가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td> <td>2-5점</td> </tr> </table>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26자 이상	2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증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내용적	① (라)와 (마)의 차이점을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패가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2-5점	40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26자 이상	2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증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내용적	① (라)와 (마)의 차이점을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패가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2-5점																					

측면 (40점)	다 각 적 으 로 찾아 서술했 는지 평가(20 점)	경우	
		목표한 일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여부를 파악한 경우	2-5점
		일의 시작과 추진에 있어 자기 주도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경우	2-5점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활용 하려는 노력 여부를 파악한 경우	2-5점	
② 목표를 이 루기 위해 필 요한 자세를 (바)와 (사)를 통합하여 제 시했는지 평 가(20점)	제시문 (바)의 논지를 파악한 경우	2-5점	
	제시문 (사)의 논지를 파악한 경우	2-5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세를 제시한 경우	4-10점	

**7. 예시 답안**

(라)의 에디슨과 (마)의 두 인물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에디슨은 최초의 도전이어서 실패를 피할 수 없었던 반면, 두 인물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려는 노력 없이 남의 말에 의존한 결과 실패를 반복하였다. 또한 에디슨이 실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도전하였던 반면, 두 인물은 비록 뒤늦게 자각하기는 하였으나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무모하게 다른 사업에 도전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두 인물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와 같이 지식과 기술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찾고, (사)와 같이 경험을 통해 얻는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선입견 없이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직접 체험은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는 병폐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선입견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경험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노력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559자)

**문항카드 6**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II / 문제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I, 국어 II
	핵심개념 및 용어	기초 과학, 지원, 생각의 틀, 두 가지 정책
예상 소요 시간	24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3]** 제시문 (아)에서 기초 과학 연구 지원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서술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문 (자)에 언급된 ‘두 가지 정책의 틀’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하시오. **[20점, 400-420자]**

**[제시문]**

(아) 2004년은 전자 공학의 해였다. 2004년이 전자 공학의 해였던 이유는 영국 과학자 플레밍이 2극 진공관을 발명해서 전자 공학을 연 해인 1904년의 100주년이었기 때문이다. 플레밍의 2극 진공관은 초기에는 크게 쓸모가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정류·증폭·발진이 가능한 3극 진공관으로 진화했고, 3극 진공관은 반도체 트랜지스터로 이어졌다.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전기·전자·컴퓨터의 혁명을 가져오고,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사실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

기초 과학이 왜 중요한가? 플레밍의 사례가 보여 주는 답은 기초 과학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을 낳고, 기술 발전이 경제의 동력으로 국가 경쟁력의 고양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익히 들어 왔던 모범 답안이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 논리로만 과학을 생각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우선 과학 연구가 기술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뿐더러 불확실성마저 존재한다. 플레밍의 기초 연구는 1889년에 이루어졌는데, 2극 진공관은 1904년에 발명되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존재했다. 이는 지금의 기초 과학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줄기세포 연구, 양자 컴퓨터 연구도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면 몇 년이면 응용할 수 있겠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영영 상용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과학은 기술을 낳는다.’는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정부와 기업은 당장 기술로 이어지지 않는 과학은 선뜻 지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는 기초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에게 응용에 대한 로드맵과 심지어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까지 적어 내라고 요구한다.

(자) ‘생각의 틀’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음가짐,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 관념 등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마음을 비워 보는 창으로서의 틀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어떤 ‘생각의 틀’로 세상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삶으로부터 얻어 내는 결과물들은 달라진다.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장기 기증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장기

이식에 필요한 의료 시설이나 경제 수준, 교육 수준, 종교 등에 차이가 있지만 같은 유럽 내에서도 나라마다 실제 장기 기증에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의 장기 기증 비율은 덴마크, 영국, 독일과 비교하면 월등하게 높다. 장기 기증 서약률에서 이 두 그룹의 국가들 사이에 거의 6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해도 이 정도 차이는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냈을까?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장기 기증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정책상 모든 국민이 자동적으로 장기 기증자가 된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장기 기증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 절차를 밟으면 기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증 비율이 낮은 나라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만 서류 절차를 거쳐 장기 기증자가 된다. 즉, 기증 비율이 높은 나라는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장기 기증자가 되고, 기증 비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만 장기 기증자가 되는 것이다. 똑같은 선택을 놓고 틀만 바꾼 것이다. 한쪽에서는 장기 기증자가 되기 위한 선택으로 틀을 설정했고, 다른 쪽에서는 장기 기증자가 되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틀을 설정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을 각각 ‘탈퇴하기’와 ‘가입하기’라고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장기 기증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선택의 문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던 상관없이 장기 기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같은 원리로 장기 기증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책의 틀에 상관없이 장기 기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정책은 사람들에게 아주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제 행동에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

**3. 출제 의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주어진 제시문의 맥락을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과정이라는 틀로 이해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여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과 2)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 특정한 주제에 맞는 근거를 찾아 체계적인 글을 쓰는 과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선별한 후 맥락에 맞는 글을 일관되고 완결된 논리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14호 [별책 5]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과목명: 국어 II	관련
	[작문] (7)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작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성취 기준 1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을 쓸 때 정보의 선별 능력과 맥락에 맞는 조직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 전달이 목적이므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독자가 알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이들 정보 중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글의 주제나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89쪽)	문형3 제시문 (아)
[독서] 성취 기준 2 (5)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문형3	

	글에 담긴 의미를 구성하는 독서 행위는 그 자체가 문제 해결적인 사고 과정이다. 즉, 단어와 문장의 의미 파악, 글의 전개 과정 이해, 필자의 주장이나 생각의 추론 및 타당성 판단 등 독서 과정의 매 순간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지적 사고 과정의 연속이다. 또한 독서는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이기도 하다. 독서가 지니는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독서에 적용하며 읽을 수 있도록 한다. (88쪽)	
	과목명: 국어 I	관련
성취 기준 1	[작문] (7)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작문의 과정과 관습을 이해한다. 작문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과정으로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작문을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생성·조직하고 표현하여 수정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전략을 익히도록 한다. 독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습을 익혀야 하는데, 작문의 관습에는 글의 관습 같은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필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도 있음을 강조한다. (75쪽)	제시문 (자)
성취 기준 2	[작문] (8)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다.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갖추어 대상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작문 상황에 맞게 선별하고 조직해야 한다. 글의 종류, 독자, 매체 등에 따라 적절한 정보와 그 조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인 통일성과 응집성에 유의하여 글을 쓰도록 한다. (75쪽)	문제 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I	신동훈 외	동아 출판	2017	58-60	제시문(자)	○ (중략)
국어 II	윤여탁 외	미래엔	2017	86-89	제시문(아)	○ (중략)

**5. 문항 해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국어 II』(미래엔, 2017)에 실린 홍성욱의 「기초 과학의 진정한 가치」의 일부이다. 이 글은 경제 논리로 기초 과학 연구 지원을 바라볼 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 제시문은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작문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글쓴이의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국어 I』(동아출판, 2017)에 실린 최인철의 「생각의 틀」의 일부이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생각의 틀이 갖는 의미와 이 관점을 적용한 사례이다. 이 제시문에는 명확한 주제가 있으며 이를 위해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화한 글의 흐름이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작문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더 나은 작문을 하는 데 효과적 텍스트이다.

	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	-------------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항 3	<p><b>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b></p> <p>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위반 글자 수</th> <th>감점 점수</th> </tr> <tr> <td>±1~25자</td> <td>1점 감점</td> </tr> <tr> <td>±26자 이상</td> <td>2점 감점</td> </tr> </table> <p>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p> <p><b>2. 내용적 측면(20점)</b></p> <p>1) 제시문 (아)에 나타난 필자의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평가함 (10점) - 기초 과학 연구 지원을 바라보는 경제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경우 5점 부여 - 경제 논리에 근거한 기초 과학 연구지원 신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 5점 부여</p> <p>2) 제시문 (아)에서 찾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자)에서 필자가 제시한 두 사례를 모두 활용하여 서술하는지를 평가함 (10점) - '가입하기' 정책에 의한 해결 방안: '가입하기' 정책에 의한 해결 방안으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지를 언급하는 경우 5점 부여 - '탈퇴하기' 정책에 의한 해결방안: 생각의 틀을 바꾸어 '탈퇴하기' 정책을 선택하고, 연구 지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과학자들 이외에 모든 기초 과학자들에게 연구 지원을 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논지를 논리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5점 부여</p> <p>*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음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음</p> <p><b>[채점 기준 요약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rowspan="3">기술적 측면 (-5점)</td> <td>글자 수 위반 (-2점)</td> <td>±1-25자</td> <td>1점 감점</td> </tr> <tr> <td></td> <td>±26자 이상</td> <td>2점 감점</td> </tr> <tr> <td>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td> <td>중대한 오류</td> <td>최대 3점 감점</td> </tr> <tr> <td></td> <td>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td> <td>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td> <td>최대 5점 감점</td> </tr> <tr> <td rowspan="3">내용적 측면 (20점)</td> <td rowspan="2">① 기초 과학 연구 지원에 나타난 문제점 (10점)</td> <td>경제 논리와 신청 절차의 문제 모두 서술할 경우</td> <td>7-10점</td> </tr> <tr> <td>경제논리와 신청 절차의 문제 가운데 하나만 서술한 경우</td> <td>2-5점</td> </tr> <tr> <td rowspan="2">② 두 가지 정책의 틀에 의한 해결 방안 (10점)</td> <td>가입하기 틀에 의한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td> <td>2-5점</td> </tr> <tr> <td>탈퇴하기 틀에 의한 해결 방안을 논</td> <td>2-5점</td> </tr> </table>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기초 과학 연구 지원에 나타난 문제점 (10점)	경제 논리와 신청 절차의 문제 모두 서술할 경우	7-10점	경제논리와 신청 절차의 문제 가운데 하나만 서술한 경우	2-5점	② 두 가지 정책의 틀에 의한 해결 방안 (10점)	가입하기 틀에 의한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2-5점	탈퇴하기 틀에 의한 해결 방안을 논	2-5점	20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기초 과학 연구 지원에 나타난 문제점 (10점)	경제 논리와 신청 절차의 문제 모두 서술할 경우	7-10점																														
		경제논리와 신청 절차의 문제 가운데 하나만 서술한 경우	2-5점																														
	② 두 가지 정책의 틀에 의한 해결 방안 (10점)	가입하기 틀에 의한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2-5점																														
탈퇴하기 틀에 의한 해결 방안을 논		2-5점																															

**7. 예시 답안**

(아)에 따르면, 기초 과학 연구는 그 자체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다른 외부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기초 과학 연구에 경제적 논리를 과도하게 적용하여 경제적 기대효과를 설명하게 하는 복잡한 신청 절차를 요구할 경우, 기초 과학 연구자들이 연구지원 신청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의 두 개의 정책 틀을 활용하면, 우선, 가입하기 정책의 틀을 유지할 경우 경제적 효과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퇴하기 틀의 원리를 활용하여 연구 지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과학자들 이외의 모든 기초 과학자들에게 연구 지원을 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408자)